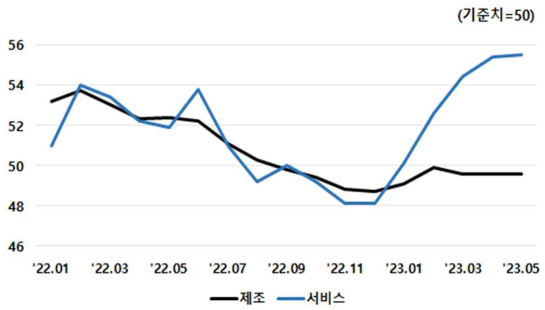
Ⅰ 경영환경

1. 경제

○ 서비스업 회복과 견조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요국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지만, 제조업은 생산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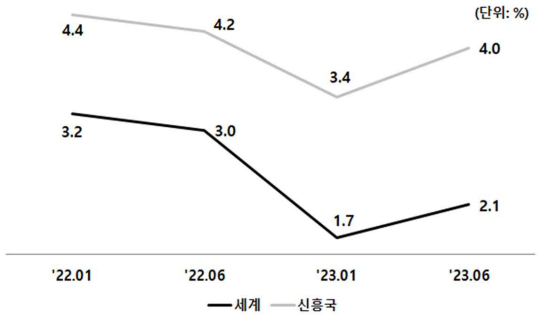
- World Bank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3년 1월에 1.7%로 전망했지만, 6월에는 2.1%로 0.4%p 상향 조정함
- 2023년 들어 민간소비 회복으로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상승하였지만, 글로벌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 이하로 부진한 상황임

〈그림 Ⅰ-1〉 글로벌 제조·서비스업 PMI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Ⅰ-2〉 World Bank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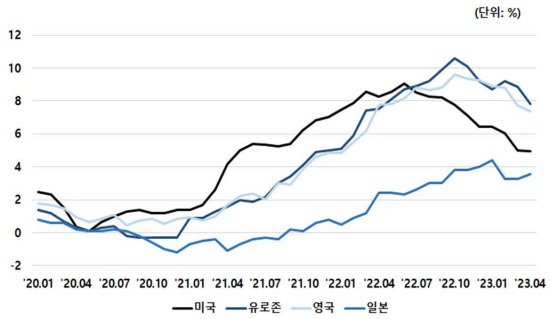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World Bank

○ 주요국 물가는 하락세이나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고, 미국과 유로존의 근원 물가도 여전히 5%대여서 하반기에도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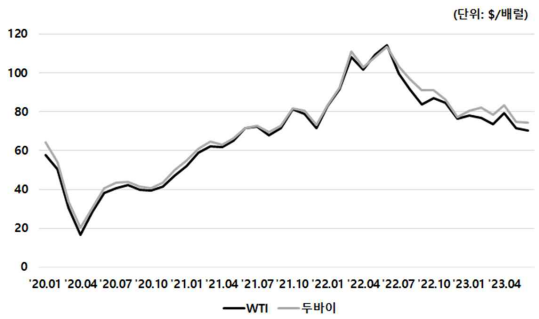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·곡물 가격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 통화정책 추진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

〈그림 Ⅰ-3〉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IMF; OECD

〈그림 Ⅰ-4〉 국제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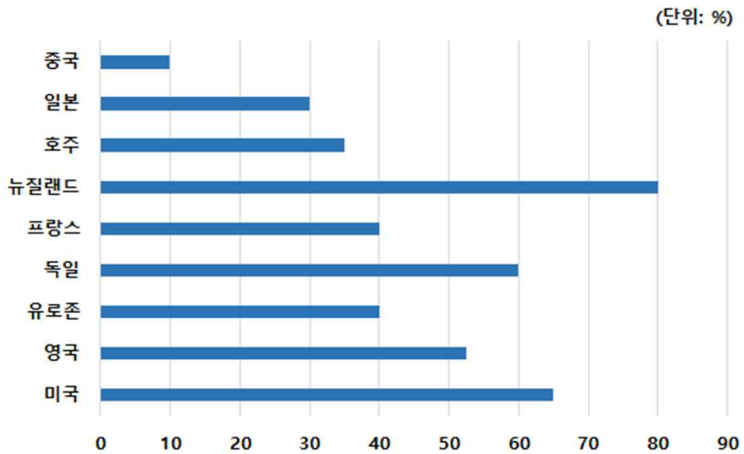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Petronet

○ 주요국 통화긴축의 여파 이외에도 미·중 대립, 중국의 경기하방 위험, 지정학적 위험(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)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

- 글로벌 투자은행(IB)은 미국, 독일, 영국, 뉴질랜드의 1년 이내 경기침체 확률을 50%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중국은 리오프닝(경제활동 재개) 이후에도 내수가 부진하며, 20%를 상회하는 높은 청년실업률, 높은 지방정부 부채,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은 상태임

〈그림 Ⅰ-5〉 주요국의 1년 이내 경기침체 확률



주: 2023년 6월 초 기준임
자료: Bloomberg

○ 한국은행과 KDI는 대체로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,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.4~1.5%가 될 것으로 전망함

- 2023년 상반기 민간소비는 고물가·고금리로 위축되고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였지만, 하반기에는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며,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

〈표 Ⅰ-1〉 국내 경제전망

구분	2021	2022	2023(F)[1]	
			한국은행[2]	KDI[3]
실질GDP	4.1	2.6	1.4	1.5
민간소비	3.7	4.3	2.3	3.0
설비투자	9.0	-0.5	-3.2	1.1
건설투자	-1.6	-3.5	-0.4	0.4
지식생산물투자	4.4	4.7	3.3	3.2
상품수출	10.5	3.4	0.4	0.7
상품수입	12.8	4.7	-0.2	0.9
실업률	3.7	2.9	3.0	2.9
소비자물가	2.5	5.1	3.5	3.4
경상수지(억 달러)	852	298	240	164
상품수지(억 달러)	757	151	195	61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 수지(억 달러)	94	148	45	102

주: 1) 2023(F)는 전망치임
2) 한국은행(2023. 5), 『경제전망보고서』
3) KDI(2023. 5), 『KDI 경제전망』
자료: 한국은행; 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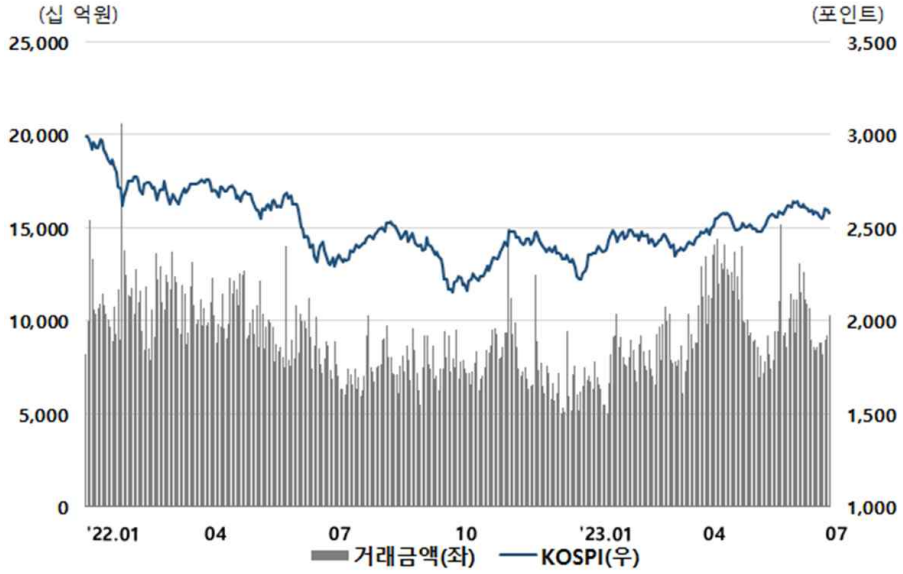
2. 금융

○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(Pivot) 기대로 인해 주가 회복, 달러 약세, 장기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, 이러한 금융여건 개선의 지속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

- 2023년 초반에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, SVB 파산 등으로 하락하였던 주가는 3월 중순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의 요인으로 반등함

- 금융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야 하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

〈그림 Ⅰ-6〉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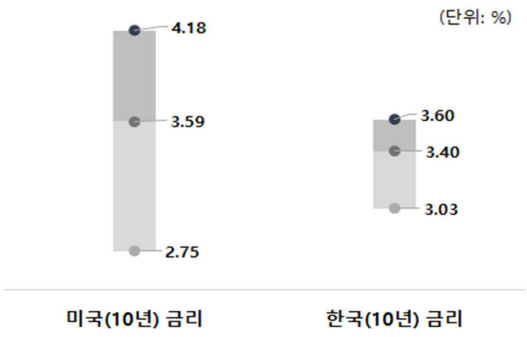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거래소

○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금리, 환율 전망의 편차가 여전히 크며,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을 방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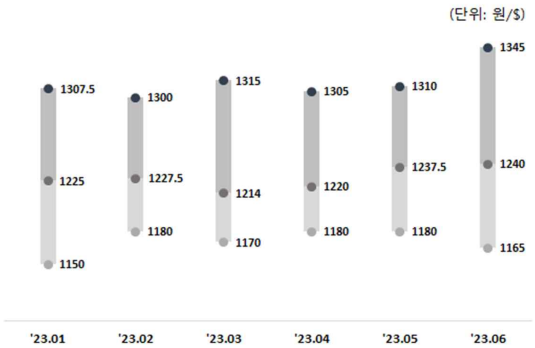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IB의 2023년 하반기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망의 분포는 2.75~4.18%이며, 2023년 하반기 원/달러 환율 전망의 편차는 6월에도 여전히 큰 상태임

〈그림 Ⅰ-7〉 2023년 하반기 국채 금리 전망 분포



주: 2023년 7월 초 기준임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Ⅰ-8〉 2023년 하반기 원/달러 환율 전망 분포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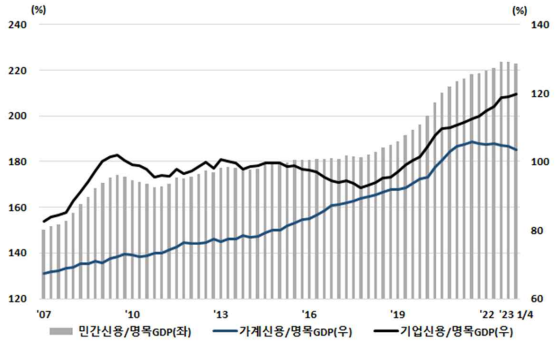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 유지와 견조한 고용시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세인데, 이러한 장기금리 상승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

- 미국은 여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큰 상태로, 최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경제전망이 개선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의한 수익률 곡선의 상향 조정으로 보임

○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감소세이지만 기업 부채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이며, 기업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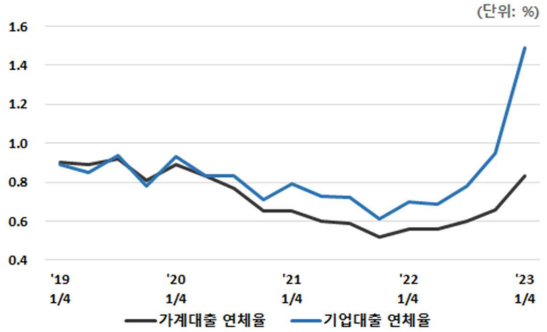
-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했지만,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
- 2022년 하반기부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여, 2023년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.83%, 기업대출 연체율은 1.49%를 기록함

〈그림 Ⅰ-9〉 신용 레버리지



자료: 한국은행(2023. 6), 『금융안정보고서』

〈그림 Ⅰ-10〉 가계·기업 대출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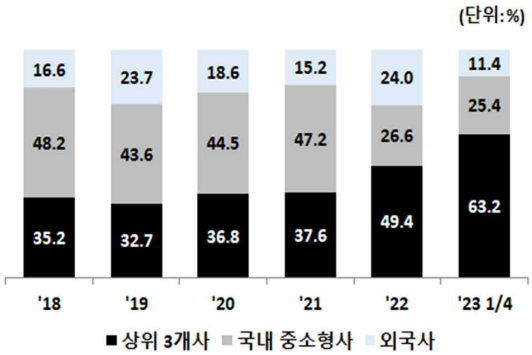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(2023. 6), 『금융안정보고서』

3. 영업

○ 코로나19 이후 대형사 중심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확대되었는데, 이러한 경향이 최근 더 크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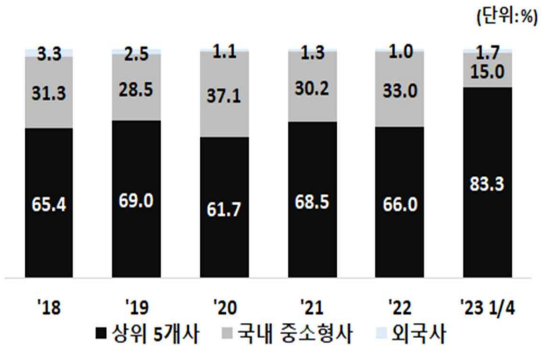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상위 3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36.8%에서 2023년 1분기 63.2%로, 장기손해보험 상위 5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61.7%에서 2023년 1분기 83.3%로 확대됨
- IFRS17 시행으로 보험계약마진(CSM)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일부 보장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되었으며,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

〈그림 Ⅰ-11〉 생명보험 그룹별 초회보험료 점유율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Ⅰ-12〉 장기손해보험 그룹별 초회보험료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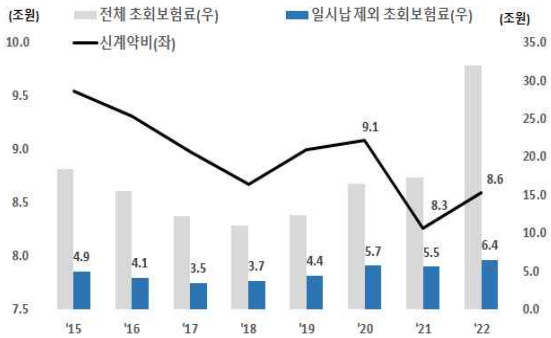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영업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1년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이후 감소했던 신계약비 규모가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였는데, 이는 영업경쟁 심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[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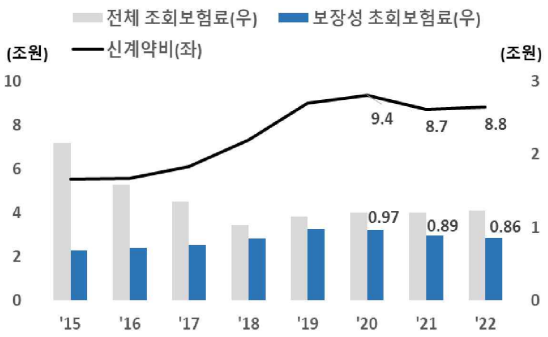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전체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는 생명보험(-9.1%)과 손해보험(-7.1%) 모두 감소하였는데, 이는 2021년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으로 보장성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 이내로 제한[2)]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
- 2022년 하반기부터 일부 종목의 신규 보험계약이 증가하면서 신계약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
- 특히,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 1원당 신계약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, 이는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용 상승과 영업 경쟁 확대를 시사함

〈그림 Ⅰ-13〉 생명보험 신계약비 및 초회보험료 규모



주: 신계약비는 이연신계약비 차감 전 실제 지출한 비용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Ⅰ-14〉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비 및 초회보험료 규모



주: 신계약비는 이연신계약비 차감 전 실제 지출한 비용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--

1) 조영현·최원(2023. 5. 8), 「보험회사 신계약비 변동과 시사점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2) 「보험업감독규정 제4-32조」(사업비의 합리적 집행)'을 참조하였으며,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함

4. 전망의 전제

○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의 예상보다 2023년 경제·금융 환경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며, 2023년 상반기에 예상보다 강했던 영업 경쟁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

- 주요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에 따라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완만하게 개선될 것을 가정함
-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강한 영업 경쟁 지속으로 2023년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은 지난 전망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경제·금융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 역시 큼
- 장기금리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높은 수준일 것으로, 주가는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나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, 환율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